30년 현장체험서 얻은 미술사 연구의 결정체

강우방 교수 회갑논집 '한국미술…'



현장을 우선으로 하는 연구 방법론과 심미적 통찰력으로 한국 미술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온 미술사학자 강우방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회갑을 맞아 미술논집 <한국미술, 그 분출하는 생명력>(월간미술)을 내놓았다. 30여 년간 현장을 누비며 건져 올린 한국미술사 연구의 결정체다.

선사시대의 빗살무늬토기에서 고구려 불상, 백제금동대향로, 석굴암, 사천왕상 등에 이르는 한국미술사의 주요 걸작들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의 특징은 한국 미술의 전반을 넘나들면서 기존 학설을 뒤엎는 새로운 해석에 있다. 불상의 광배를 장식하는 무늬는 불꽃 모양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의 몸이 발산하는 기와 생명의 빛이라는 견해, 와당 등에 사용된 형상은 중국에서 부르듯 짐승의 얼굴(獸面)이나 귀신 얼굴(鬼面)이 아닌 여의보주가 변형된 척목(尺木)을 등에 달고 있는 용의 얼굴(龍面瓦)이라는 견해 등이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한국미술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혀 온 민예적 성격을 부정하고, 강렬하게 분출하는 '생명력'을 한국미술사를 관통하는 주된 흐름으로 제시한다. "호방한 선(線)과 현란한 색채의 고구려 고분벽화, 부도, 불상, 탑 등의 사이에 하나로 연결되는 끈이 있다. 그 끈이 바로 분출하는 한국인의 강한 생명력이다."

'새로운 한국미술사'라 할 정도로 독창적인 강 교수의 학설은, 체험에서 얻은 결론들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연구기금 확충 학회발전 진력"

새 한국불교학회장 권기종 교수



권기종(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17일 한국불교학회 6대 회장에 선출됐다.

1973년 창립돼 불교학회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불교학계의 대표격인 불교학회를 앞으로 2년 동안 이끌게 된 권 교수는 "학회의 도약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는 소감을 먼저 밝혔다.

불교학회가 전반적인 침체기를 벗어나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재정적 어려움으로 질적 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권 교수는 "기부금 확보를 통한 연구비 증대에 우선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폭넓게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수준 높은 논문 발표를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불교학회의 맏형으로서 국지적인 부분에 매달리기보다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학회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실크로드 한반도까지 연장"

깐수 교수 '고대문명 교류사' 등 3권 펴내 학문적 복권





간첩 행위가 밝혀짐으로써 6년간 복역하다 지난 해 출감한 정수일(66 · 일명 무하마드 깐수) 전 단국대 교수가 학문적 복권을 시도하고 있다.

동서 문명 교류사 연구의 권위자로 인정받는 정 씨는 지난 9월 <이븐 바투타 여행기>(창작과 비평사)를 출간한 데 이어 최근 <고대문명교류사>(사계절), <실크로드학>(창작과비평사) 두 권의 저서를 한꺼번에 내놓았다.

고대 · 중세 · 근현대로 나누어지는 3부작 가운데 첫 편인 <고대문명교류사>는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유목 · 기마 민족의 등장, 로마와 중국의 교류, 불교와 기독교의 전파와 수용이 전개된 기원 후 5 · 6세기까지를 다룬다.

"인류 5천년 문명사는 서로 다른 문명들의 만남과 나눔, 즉 교류의 과정"이라는 역사의식에 바탕을 둔 정 씨는 서양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시각으로 세계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정 씨가 말하는 문명 교류사는 단순히 동양과 서양의 단선적 교류가 아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유럽 중심주의, 유라시아 대륙에만 국한된 문명 교류를 거부한다. 동 · 서양의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소외됐던 스키타이나 흉노와 같은 유목 · 기마 민족을 고대 문명 교류사의 주역으로 재평가한다.

"인류 5천년 문명사 만남과 나눔의 과정"

또한 실크로드는 중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까지 연장된다는 점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한반도 일대의 고인돌과 거석 기념물의 관련성, 경주 출토 유리병과 로만 글라스의 관련성, 불국사 출토 석십자가와 고대 기독교의 관련성 등을 통해 한국사를 교류사적 측면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세계 문명 교류사의 맥락 속에서 한국사를 재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러한 한국사의 재해석 시도는 불교 전파에 대한 인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가에 의한 공식적인 수용을 불교 전래의 시원으로 삼는 기존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왕명이나 공권력에 의한 국가적인 수용은 확산 · 변용의 단계에서 이뤄지는 일로서 초전이라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씨는 "아직은 사료의 미흡으로 상론할 수는 없지만 단편적인 사료나 추론만으로도 고구려 · 백제 · 신라 삼국에 불교가 국가에 의해 공인되기 이전부터 유포되고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가 한반도에 전래된 통로 역시 기존 북방 전래와 함께 남해 해로를 통한 전래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유입이나 보급에서 지속성이 결여돼 결국 신라불교에 흡수되어 명맥을 잃고 말았지만 수로왕이나 허황옥, 장유화상과 관련된 불적, 김해 양동리 유적과 옥전 고분 등에서 출토된 불교 유물 등을 볼 때 남방 전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정 씨는 밝힌다.

함께 출간한 <실크로드학>은 교통사 또는 지역학에만 치우쳤던 실크로드 연구를 하나의 포괄적이고 독립된 학문으로 정리하려는 개설서로 문명 교류사의 총론격에 해당한다.

두 저서를 통해 정 씨는 "인류의 역사는 공생 공영할 수 있는 방도와 대안을 찾아 과정이었고, 그것은 바로 문명 교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학문적 소신을 밝혔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연기사상은 니체 이해 키워드"

박경일 교수 동서비교문학학회서 발표

그 동안 서양에서 니체 철학과 불교가 상극의 길을 향한 것으로 이해되어 온 것과는 달리 불교의 연기 개념이 니체 사상을 이해하는 '키워드'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경일(경희대) 교수는 17일 열린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가을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 '니체와 불교'를 통해 "그간의 니체와 불교 비교 연구는, 니체의 핵심 사상인 권력의지 사상 및 관계론과 불교의 연기 · 공 사상 간의 관련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서구 연구자들뿐 아니라 니체 자신도 불교를 허무주의로 쉽게 규정해 버렸고, 때문에 불교의 핵심인 연기 · 공 사상이 포스트모던에서 주장하는 해체적 사유의 근원적 패러다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박 교수는 "불교의 연기 개념은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바탕이 된 니체 사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며 "니체가 <권력에의 의지>에서 물 자체의 속성들과 본질이 자존자족적인 것이 아니라 의존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해체방식은 용수의 자성해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데리다 해체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텍스트 이론은 불교의 연기설에 대한 주석서로 읽힐 수 있다"며 "불교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적인 인식 틀을 이미 간파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9세기 신라불교 교종 · 선종 양립"

조영록 교수 주장

9세기 전반기 한 · 중 · 일 동아시아 3국의 불교 교류를 해상 교섭 측면에서 고찰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해상왕 장보고 연구회는 27일 '법화사상과 동아시아 불교교류'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조영록(동국대) 교수는 '9세기의 한 · 중 · 일 해상 교섭과 불교 교류' 주제 발표에서 "한 · 중 양국 동해 연안의 관음 도량은 9세기 들어 창건되거나 중건됨으로써 활발한 신앙 활동을 전개되었는데, 9세기는 한 · 중 · 일, 동아시아 3국의 해상 교류가 가장 활발한 시기였다"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한 · 중 양국의 3대 관음도량의 특징을 살피는 과정에서 9세기에 이미 신라에 선종이 활동했음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승려 엔닌이 장보고가 중국 산동반도 적산에 건립한 법화원을 방문하고 남긴 <입당구법순례행기>을 보면 당시 법화원에 교종 승려 11명, 선종 승려 4명 등 27명의 승려가 거주했다는 기록이 보이는 데, 이는 신라 불교가 9세기 중엽에 이미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질 만큼 선종의 입지가 확고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高僧 다시보기

일연 스님과 삼국유사

일연 스님(1206~1289)은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 고대사 연구에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사료인 <삼국유사>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1206년에 태어난 스님은 9세인 1214년(고종 1)에 출가하여 14세에 설악산 진전사에서 득도했다. 진전사는 가지산문의 개창조이자 조계종 종조로 추앙받고 있는 도의 국사가 주석했던 곳으로 유명한 절이다. 스님은 대각국사 의천 스님이 천태종을 개창할 때 동참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하고, 선종 부흥을 위해 노력한 고려 중기 원응국사 학일(1052~1144) 스님과 고려말 태고 보우국사로 이어지는 조계종 가지산문 계열의 선맥을 이었다.


◇일연 스님 진영.

한편으로는 1238년(고종 25) 이후 6차에 걸친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시작된 <대장경> 판각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뿐만 아니라 1268년(원종 9)에는 운해사에서 선종과 교종의 큰스님 100여 명을 모아 <대장경> 낙성회를 개최했다.

대장경 판각사업 주도적 참여

1261년(원종 2) 왕의 부름을 받고 상경한 스님은 선월사에서 "묵우자 지눌 스님의 법을 이었다"고 천명함으로써 가지산문에 속하면서도 사굴산문 계통의 수선사 지눌 스님의 법을 계승하였다. 또 스님은 남종선뿐만 아니라 북종선인 조동종을 과감히 수용하여 교세 확장을 꾀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무신 집권기이래 흥성했던 수선사의 사세를 잠시 누르고, 친원적 성향이 짙은 천태종의 묘련사 세력과 대립하기도 하면서 1283년(충열왕 9) 국존(國尊)에 책봉됐다. 국존이란 국사를 말하는데, 고려가 원 나라의 간섭을 받아 제후국으로 강등 당하면서 국존이라 낮춰 부르게 된 것이다.

외세 대항 주체성 확립 강조

스님은 이러한 외세의 압제 아래서도 중국의 선풍을 수용하고, 불교와 민중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 예컨대 단군을 개국 시조로 우리 문화사를 종합 · 정리한 <삼국유사>를 편찬 · 간행하였다. <삼국유사>는 스님이 독창적으로 저술한 것은 아니지만,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이 듬뿍 담겨 있다. 불교의 이야기만을 적은 불교 서라기보다 우리 정신문화의 보고이자 민중 생활사이다. 그런데도 요즘은 그리스 · 로마 신화나 이솝우화는 줄줄 외우면서도 <삼국유사>에 전하는 우리의 이야기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나 나오는 것쯤으로 아는 이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외세의 정치적 압력과 문화적 강요에 맞서 우리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한 스님의 큰 뜻을 곱새겨 봐야 할 것이다.

■황인규/동국대 강사